

승실대학교 극예술연구회  
제 81회 정기공연

2012년 12월 6일 (목)~12월 8일 (토)  
목,금 오후 6시 30분  
토 오후 1시 30분  
5시 30분  
신학생회관 1층 블루큐브

연출 | 정성원  
조연출 | 김동환  
기획 | 최한나  
부기획 | 윤예슬

# 스필로비치 유랑극단



주관 | 승실대학교  
주최 | 승실대학교 극예술연구회  
후원 | 세르비아 대사관

## 축하의 글

싱그러운 봄, 무더운 여름, 결실의 가을이 지나고 한해를  
마무리 짓는 겨울입니다.

이번 겨울, 100여년의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승실대학교 극·예술 연구회에서 올리는 공연이  
매서운 겨울의 추위를 녹여주는 따뜻한 공연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번에 올리는 <쇼팔로비치 유랑극단>은 전쟁 중에  
예술의 의미를 묻는 작품입니다.

전쟁과 같은 일상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연극은 신이 아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예술입니다.  
한 학기 동안 학업과 병행하며, 성실히 준비한  
학생들의 수고에 박수를 보내며  
많이들 오시어, 연극을 통해 바쁜 일상의 피로를 잊는  
위로의 기쁨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 쇼팔로비치 유랑극단



승실대학교 총장  
김대근

## 동문회장의 말

추운 날씨에 순수한 고갱이들의 몸부림을 보려와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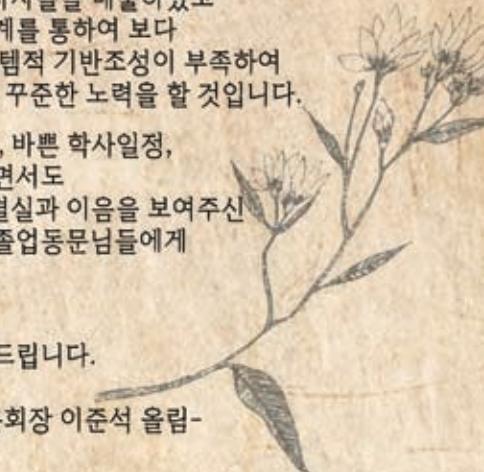
저희 승대극회는 1921년 평양 숭실 시절의 연극공연 활동을 역사적 계승차원에서 이정표를 두고  
1965년 이반 교수님, 소설가 황석영님을 필두로 승대극회의 서울 시대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연출, 배우, 가수 등 공연문화 유관련 종사자들을 배출하였고  
이러한 역사성을 바탕으로 많은 동문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보다  
진화된 모습을 꾀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방법과 시스템적 기반조성이 부족하여  
조금은 더딘 행보를 하고 있지만 좋은 공연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매 공연 때마다 조금은 아쉬움이 남지만 빠듯한 예산, 바쁜 학사일정,  
너무나 비싼 학비 때문에 용돈벌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2개월 넘게 열정적인 연습을 통하여 좋은 무대위의 결실과 이름을 보여주신  
승대극회 재학생 동문후배님들과 도움을 주신 모든 졸업동문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승대극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키워가는 승대극회 동문 일동과 동문회장 이준석 올림-



85' 이준석

## 극회장의 말

관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실대학교 극예술 연구회의 회장, 극회장입니다!

가을 정기공연 '쇼팔로비치 유랑극단'. 승대극회의 2012년을 마무리 하는 공연입니다.  
이번에는 저도 배우로 참여하게 되었네요.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두달이 약간 넘는 연습기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대, 조명, 의상 등 하나하나 저희 손으로 준비하며  
관객분들에게 최선의 무대를 보여드리려 노력했습니다.



07' 김현우

피와땀이 배여있는 저희 공연을 보시고,  
관객 여러분들께서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저희 공연을 보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연 보시고 나서 연출, 기획, 배우, 스탭들에게 박수 힘껏 쳐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재미있게 보세요!

마지막으로 '쇼팔로비치 유랑극단'이 올라갈 수 있게 여러분으로 힘써준  
승대극회 재학생들과 항상 응원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졸업동문선배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 연출의 말

"조금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연극이라는게 있습니다.  
조금은 낯설 수도 있지만 그 연극이라는 것에 대해 한번쯤 들려드리고 싶었고  
이 작품이 그 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어머니에게 말하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작품을 꺼냈습니다. 예술이라고는 어릴 적 어머니  
무릎 한 켠에 누워 듣던 올드 팝이 전부인 제게 연극을 만나게 해준, 내 삶에 연극이 들어오게 해준 극회에  
그리고 너무나도 각박한 삶이 예술을 가까이 할 수 없게 했던 사랑하는 분들께 이 작품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예술이라는 것은 숨처럼 공기처럼 늘 우리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늘 그분들을 볼 때면 예술은 그네들의 삶과는 너무나도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삶이 그렇게 이끈 그분들께 이 작품을 들려주고 싶었고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한 공연이었는데,  
어쩌면 이 작품을 통해 하고자 했던 그 많은 말들은 내 자신에게 하고자 했던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물질적 유인에 의해서만 동기화되는 내 자신에게,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속물스러워지는,  
신념도 소신도 없이 현실과 삶에 매몰되는 내 자신에게, 이 작품은 지난 1년간 한 순간도 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시처럼 '어느날 내게 다가온' 이 작품은 내게 먹고 사는 것 못지 않은 소중한 가치들을 일깨워 주었고 그러한 가치들을  
잊을 때마다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죽음마저도 갈라놓지 못한, 힘든 현실 속에서도 각자의 삶을 밟고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앞으로의 내 삶에 있어서도 언제까지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 추웠던 지난 겨울, 이 작품을 우연히 만나고 책장 한켠에 꽂아두었다가 다시금 펼친 이후 5달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한번의 계절이 지나고 다시 맞이하는 겨울 앞에서 지난 시간동안 도와준 많은 이들이 생각납니다.  
너무나도 막막한 그때 공연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준 두 친구 - 최지훈, 박용석 - 두 친구가 없었다면 전 시작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매 공연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극회 선배님들, 더 좋은 공연으로 화답하고 싶었지만 선배님들을 생각하면 고개만 숙여집니다.

힘든 시간 곁에서 도와준 극회 재학생 선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함께해준 기획 한나, 부기획 예슬이, 조연출 동환이  
그리고 18명의 캐스트들, 스텝들 끝까지 함께해줘서 고맙습니다. 저마다 끼와 재능이 넘치는 이들과 함께하며  
부족한 내 자신을 돌아볼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얼마 후면 지난 얼마간의 연습도 끝날 텐데,  
언제까지고 당신들이 그리울 것입니다. 연출이라는 이름을 내걸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혹여 이 공연에서 내 뜻이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제 부모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08' 정성원



10' 김동환

## 조연출의 말

당신은 무언가를 즐기고 있나요? 저는 즐기고 있습니다.  
그 종류와 흐름과 방향이 모두의 길에서 조금 혹은 많이 비켜나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덕분에 저는 지금 아픔을 즐기고 있습니다. 괜한 오기로 말이죠.  
이 글을 읽는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느 때라고 해도 즐기고 있겠죠.

얼굴에 근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저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진심으로 즐기고 있을 겁니다.  
공연을 올리는 우리와 보러 와주신 여러분도 우리와 같은 시간을 즐겨주십시오.

쇼팔로비치 유랑극단을 함께한 우리는 이미 모두 속의 우리입니다.

## 기획의 말

라면과 윤예슬은 연극을 하는 세 달 동안 한결 같이 제 옆에 있어준 벗입니다.  
특히 윤예슬의 눈웃음과 귀척을 언제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볼 수 있을지.....

기획을 맡게 되고, 공연 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혼자 생각이 많아지는데,  
그럴수록 스스로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외롭거나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극회실에만 오면 함께하는 사람들 덕분에 다시 의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고마운 마음 이렇게 글로 표현합니다.

성원오빠, 제일 고생 많으신데 그걸 자꾸 까먹고 더 힘들게 해드린 것 같아,  
뒤돌아서면 죄송했어요. 저의 짜증을 참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내가 일처리가 미숙해서 말은 못했겠지만 마음고생 했을 조연출 동환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스텝들에게는 특별히 고맙습니다.  
예은언니, 예쁜 그림 그려주셔서, 예쁜 포스터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림, 지현아, 무대디자인과 각종 디자인 하느라 많이  
애써줘서 고맙습니다.

예쁜 디자인으로 힐링 받았습니다.  
또 여균, 태용아, 맑은 일 외에도, 부탁하면 기꺼이 함께해줘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분장과 캐스트로 즐겁게 함께해준 소연이에게도,  
채플 공연을 끝내고 힘들 텐데 시민으로 함께해준  
운미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연습기간이 겹쳐서 번거로웠을 텐데,  
성심성의로 배려해준 채플공연팀에게도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많은 졸업생 선배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끼는 캐스트 여러분. 두 달 동안 늦은 귀가하면서도,  
웃으며 재밌게 준비하던  
이 공연 잊지 못하게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P.S. 윤예슬이 사랑한다 헝

2012. 겨울. 최한나 드림

09' 최한나

12' 윤예슬

## 부기획의 말

뭣도 모르고 덜컥하겠다고 말한 <쇼팔로비치 유랑극단> 부기획.  
처음이라 부족하고, 부족한 나 자신을 보며 자책도 많이 했지만  
항상 옆에서 응원해 주신 기획님, 연출님, 조연출님 덕분에  
힘들지만 행복하게 공연을 준비할 수 있었다.

나의 생활을 뒤로 한 채 '사서 고생'을 왜하냐고들 하지만  
<승대극회>와 '연극'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  
그리고 '무엇'과 함께 '사람'이 있다.

세달 동안 연극만을 바라보며 함께 달려온  
<쇼팔로비치 유랑극단> 식구들.  
기획님 연출 조연출님 캐스트분들 스텝분들과  
도와주신 다른 분들 모두  
나에겐 가족이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9월. 여름 기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작한 공연준비가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고,  
어느덧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어 공연을 올릴 날이 다가왔다.

20살 가을, 겨울을 온전히 함께한 <쇼팔로비치 유랑극단>.  
나중에 돌이켜 보았을 때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식구들에게 말하고 싶다.

여러분 사랑해요 하트

한나언니 사랑해여~~~~~ㅋㅋㅋ



# 추천사

## 연극에 살다

세르비아 작가 류보미르 시모비치의『쇼팔로비치 유랑 극단』은 연극이라는 예술 세계가 현실 세계에서 왜 필요한지 그 존재이유를 가늠하게 해준다. 예술은 밥이나 옷처럼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극중 인물이 전하고 있듯이, 예술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언한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의 문제라면 그러한 인생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인생유전(人生流轉)을 이해하고, 그 삶의 기미들에 공감하도록 돋는 것이 예술이다.

우리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많이 서글퍼질 것이다. 또한『쇼팔로비치 유랑 극단』이 전하는 것처럼, 연극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과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잊을 수 있다는 것, 아마도 오늘날 무한 능력의 대명사가 된 컴퓨터나 스마트 폰이 감히 할 수 없는 것이 잊어버리는 일이다.

잊음은 서로가 먹고 살려고 죽어라 달려야 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잠시 멈춰서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경쟁을 중단하고 그렇게 멈춰서도 인생이란 것이 망조가 드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모든 연극은 불온한지도 모르겠다.

현대 사회는 여러분을 스스로 착취하게 하면서, 멈추지 않고 늘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절대 능력이나 권력인양 만들어 여러분이 완전히 소진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소진하도록 하는 자기 계발과 긍정의 심리 "I can do"가 능사가 된 세상에 연극은 멈출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한 절망도 하나의 거대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하게 보여주려 하는 것이다.

때문에 오늘날 다시 그리고 새롭게 "쇼팔로비치 유랑 극단"을 재현하는 숭실 극회가 새삼 자랑스러워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겨울의 한 모퉁이에서 보여주게 될 그 열화 같은 무대 앞에서, 모든 현사들은, 아니 모든 이론들은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이찬규 교수님(불문학)

## 쇼팔로비치 유랑 극단(Putujuće Pozorište Šopalović) 류보미르 시모비치(Ljubomir Simović) 지음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하루 동안 세르비아의 우지체라는 작은 도시에서 그곳 시민들과 쇼팔로비치 유랑 극단 단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담은 세르비아의 희곡이다. 전쟁으로 대변되는 현실의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연극이라고 하는 꿈과 이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다.

### 작품 이해를 위한 '도움 글'

『도적 때』  
독일의 문학가인 프리드리히 폰 실러의 작품이다. 당시 절대주의 왕정 치하에서 시민사회와 프랑스 혁명으로 넘어가는 격변의 시대에 시민 계급은 기존 사회 체제의 맹에에 놀려 정치적으로 뜻을 이룰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는 지나치게 이성을 강조하고 감정을 무시하던 계몽주의 경향의 사회 풍조에 짓눌려 있었다. 고톤을 비롯한 시민 계급 출신의 젊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독일 문단을 휩쓴 문학 운동 <질풍노도(Sturm und Drang)>는 당시의 사회에 대한 문학적인 항의와 반항의 표출이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실러의 「도적 때」는 정치적 억압과 폭정에 대항하여 반란의 깃발을 높이 든 작품이다.

### 『시라노』

프랑스 작가 에드몽 로스탕의『시라노』.  
문무의 재능을 겸비한 호쾌한 귀족 시라노는 자신의 아름답고 재기 넘치는 사촌 록산을 마음 속 깊이 사랑하고 있지만, 기형적으로 생긴 거대한 코를 가진 추남인 자신은 사랑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감정을 전하지 못한다. 그러면 중 록산은 시라노의 부대에 배속된 젊은 귀족 크리스티앙과 사랑에 빠지고, 시라노는 이 젊은 이를 대신해 열정적인 연애편지를 쓰게 된다.

### 『엘렉트라』

그리스 비극의 대표작가 소포클레스의 대표작.  
아버지를 죽인 어머니와 정부에게 복수함으로써 정의를 세우는, 고집스럽고 집착적으로 불릴 만한 엘렉트라의 정신성을 그렸다. 상대주의가 팽배하여 정의를 가늠하는 것이 어려운 현대인들에게 그녀의 모습은 집착적이거나, 비정상적으로까지 보인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녀의 정신성이 빛난다. 비천함과 송고함을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운명을 삶의 조건으로서 인정하고, 당당히 마주하게 해주는 그리스 비극의 정신이 잘 담겨 있다.

### 라키야(Rakija)

극중 블라고예가 애주하는 음료이다.  
발칸반도 전역에서 국민음료로 불리는 라키야는 40도가 넘는 술로 발효된 과일의 증류를 이용해 만든다. 특히, 자두, 살구, 포도 등과 혼합하여 만드는데 그 향이 좋아 첫 맛이 달콤하지만 뒷맛은 매우 쓰다.



# 배우소개

# 배우소개



07' 김현우  
바실리예 쇼팔로비치  
“내겐 물고기가  
배보다 더 큰 기적이고,  
한 마리 제비가  
비행기보다 더 큰 기적으로 느껴져”



11' 이다운  
엘리사베타 프로티치  
“황폐한 땅을 가로질러  
눈물로 가득 찬,  
우리는 나무칼을 들고  
불속으로 떠난다네!”

## 쇼팔로비치 유랑극단



12' 임한성  
필립 트로나바츠  
“....나의 해골은  
어느 극단의 소품으로 쓰이기를.”



12' 강지수  
소피야 수보티치  
“난 여름이 좋아!  
낮에는 꿀벌이 잔뜩 날고,  
밤에는 개똥벌레가 있는!  
여긴 정말 평화로워.”

## 경찰관



10' 김동환  
밀른  
“남들 하는 것 처럼 하는거지. 아무 것도 없어.”



10' 오광규  
마이첸  
“허가증은 있나?”



09' 김현우  
드로바즈  
“같은 달빛인데  
안에는 암흑과 악취가 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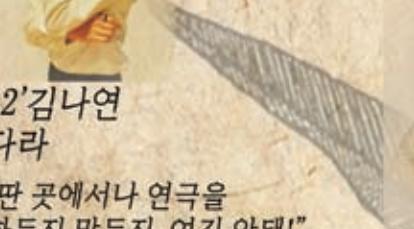
## 마을 주민들



11' 윤미나  
기나  
“내 배들은 온통 이 대야에 빠졌어!”



12' 김나연  
다라  
“딴 곳에서나 연극을  
하든지 말든지, 여긴 안돼!”



10' 고운미  
시민 헤라  
“이보세요! 배우양반들  
좋은말로 할때 꺼지시지”



11' 장영주  
심카  
“하지만 지금이 연극 공연을  
할 때인가요?  
배우와 뺑굽는 사람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12' 정일식  
블라고예 바비치  
“내 목을 두고 맹세하지.  
그 앤 아무것도 몰라!”



12' 윤예슬  
시민 시다  
“전쟁중에 연극을해? 지랄을해요 지랄을”



10' 이소연  
시민 싸야  
“하늘의 심판이 내려지겠군!”

# 스텝소개

# 스텝소개

## 무대팀



06' 서동현 08' 김상현 08' 서명득 08' 호혜인

## 홍보팀



09' 이경문 12' 김연교

## 스폰팀



09' 원종진 11' 라하나

## 조명팀



12' 오여균 12' 이태용

## 시각디자인팀



12' 권미림 12' 이지현

## 분장



10' 이소연

## 의상



12' 박소현

## 음향



09' 이근희

## 소품



12' 김승범



충실대학교 만돌린오케스트라

만돌린 단원 여러분!  
기꺼이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충대극회의 공연에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쇼팔로비치 유랑극단〉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졸업생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7'정재호 79'이종규 85'이준석 85'황금실  
96'서정훈 99'김희진 01'이상혁 04'한재진  
04'황인욱 06'박용혁 07'정다운



# 연습일지

9월 13일

신입부원 오디션

나도 12학번 신입생인데 2학기 신입부원 오디션이 진행되니까 기분이 묘하다.  
3월에 승대극회인이 된지도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니!  
벌써 1학년 1학기 나에게는 소중하고 기억들이다.  
오디션 9명이나 왔다! 이분들과 함께하는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쇼팔로비치 유랑극단!

9월 18일

11인분의 라면을 거의 혼자 끊었다.

맛있게 먹어주는 캐스트들 고맙구 귀엽다.

오늘 처음으로 시간을 봐가면서 진행하신 연출님~ 앞으로도 그러시길 바랄게요.  
반복해서 말하는 습관도 고치시길 헛 헛 이러한 변화 옆에는 연출부가 ^.^

9월 30일

신한20에 뽑히기 위해서 모두가 열심히 참여해줘서 감동이었다.

가입해서 댓글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작은 것인지만  
하나둘씩 모이면 엄청나게 큰 힘이다.

쇼팔로비치팀 전체가 다 함께 노력한 것이라 행복했고  
졸업선배님 등 재학생 선배님들도 함께 해주시는 모습보면서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다.  
근데 우리 회식하는 날이 언제 오려나?ㅋㅋㅋ

10월 15일

동환오빠의 복귀로 조연출이 업연히 생기고  
나는 앞으로 보조적인 스텝이 된다.

자주는 못 나오겠지만 마음속으로 항상

우리 쇼팔로비치팀 정말 완전 응원하구 있다♡

우리 쇼팔로비치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헛 헛 헛  
가을정기 화이팅!!



2012년 10월 15일 월요일  
오늘 라면 맛있었당 히히 스텝최고!!  
앞으로 내가 살빼느라 못먹게 될지도 모르는 라면ㅠㅠㅠ

2012년 10월 17일 수요일  
우리 유랑극단 서로서로 힘되고, 웃음주고,  
모두 열심히 해서 정말 좋다.  
내 생애 첫 연극을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올릴 수 있어 다행이다.

2012년 10월 19일 금요일  
오늘은 연극보러 가는 날~♪  
절대 트레이닝 없어서 신난거 아니에요. 하하하

2012년 10월 31일 수요일  
불행 중 다행으로 연출님이 안계셔서  
트레이닝을 좀 부드럽게 진행했다.ㅋㅋ

2012년 11월 4일 일요일  
공연 한 달 '밖에' 안 남았다고 하지만  
한 달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시간 아닌가.  
할 수 있다!

2012년 11월 10일 토요일  
'저 연극합니다.' 이 한 마디가 훈훈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연극합니닷. 아! 훈훈해...

2012년 11월 20일 화요일. 추움.  
초가을부터 시작했던 일들이  
이제 겨울이 다가옴을 느낄 수 있는 시간까지 흘려왔어요.

...공연이 끝나면 이런 일상적이고 당연했던 극회사람들과의 만남도  
지금처럼 매일은 못만날 것을 생각하니...

2012년 11월 26일 월요일 D-10  
제 배역과 우지체 마을과는 헤어질테지만,  
극회 사람들과 극회실은 여전히 이 곳에 있을테니...

# 공연 연보

## 채플공연연보

회	공연일자	작품명	기획	연출
1	1920년 6/13	연극서리 '장미여인을 나불레옹의 밭으로' 대비극 노래의 힘		
2	1920년 7/21	진정한 부여민족연극 '기적모모' 2부작		
3	1920년 7/29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4	1920년 8/11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5	1920년 8/2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6	1920년 9/10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7	1920년 10/29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8	1920년 11/15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제3회	
9	1920년 12/27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0	1920년 12/28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제3회	
11	1920년 10/26.27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2	1920년 10/26.27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3	1920년 9/20.21.22.23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4	1920년 10/29.30.31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5	1920년 6/1.2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6	1920년 10/26.27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7	1920년 9/15.16.17.18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8	1920년 10/11.12.13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9	1920년 6/5.6	『Career part』 제3회 우승작	제3회	
20	1920년 10/24	『Career part』 제3회 우승작	제3회	
21	1920년 6/1.2.3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22	1920년 9/29.10/2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23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24	1920년 6/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25	1920년 1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26	1920년 6/1.2.3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27	1920년 10/26.27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28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29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30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31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32	1920년 1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33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34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35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36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37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38	1920년 1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39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40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41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42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43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44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45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46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47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48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49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50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51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52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53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54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55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56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57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58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59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60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61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62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63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64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65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66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67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68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69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70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71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72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73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74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75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76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77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78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79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80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81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82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83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84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85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86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87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88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89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90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91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92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93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94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95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96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97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98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99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00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01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02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03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04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05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06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07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08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09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10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11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12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13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14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15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16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17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18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19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20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21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22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23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24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25	1920년 6/1.2.3.4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126	1920년 11/5.6	『제3회 후기연극전시회 우승작』 우승작	제3회	

07' 김현우  
고기먹고 싶어요 기획님

08' 정성원  
연극이 끝난 뒤 외로워지는 공연이기를...

09' 김현우  
영원히 못 잊을 작품 쇼팔로비치 유랑극단

09' 최한나  
쇼팔♥

10' 고운미  
힘든만큼 우리 모두 즐겨요~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 좋게^-^

10' 김동환  
다했다

10' 오광규  
잘하자, 노력하자,

10' 이소연  
잊지못해요 쇼팔로비치♡

11' 윤미나  
흔란스러웠던 2012년 가을을 함께해준  
쇼팔로비치 유랑극단 잊지 못할거예요  
♥트레이닝도♥

11' 이다운  
무대 위 찬란한 세 시간이,  
머릿 속에 평생의 강렬함으로 남길♥.♥

11' 김혜민  
잊지 못할 값진 경험!!  
꼬부랑 노인이 되서도 팜플렛 보면서  
흐뭇할 것 같아요~3-

11' 장영주  
심카로 거듭나기!!에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공연하게 해주셔서 모두 모두 감사해요ㅎㅎ

12' 이지현  
처음 도전해보는 일이라  
어렵고 힘든 것도 많았지만 즐거웠어요.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용 ♥

11' 김나연  
함께 만들어가며 느끼는 재미!  
끝난 후엔 행복으로 기억될 것 같다^-^  
무엇보다 웃봄 일으키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12' 오여균  
첫 대본 리딩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공연이네요.  
쇼팔팀, 극회인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 정일식  
배우들 위해 밤낮으로 일해준 스태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블라고예,, 꽈망싸바?

12' 이태용  
다같이 공연 준비하면서 다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다들 기억에 남는 좋은 공연 됐으면 좋겠습니다~

12' 박소현  
항상 마음은 승대극회와  
함께입니다!  
20살의 추억,  
그 1년을 같이한 승대극회  
잊지못할거예요. 고마워요♥.♥

12' 윤예슬  
극회는 너무 오묘해

12' 권미림  
유랑극단 흥해라~

11' 임한성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미칠 수 있단건  
미친듯이 기쁜일이죠.

12' 강지수  
힘들어서 더 값졌고, 같이 울어서 더 소중했습니다.  
이번 한 해 제게 가장 큰 선물은 쇼팔로비치출연과 그 과정에서 얻은,  
이젠 가족이 된 사람들이예요. 이런 행운이 저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것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



**동아리당구장**



**주모리** 승실대점

**티켓 소지시 맥주 500cc 무료!**

**지식으로 만드는 지식**

지만지는 전세계 모든 분야의 고전 3000종을 출간합니다

14

15

선편도비치  
유랑고단